

경제 건강지표, 특허

최근 발표된 미국의 특허관련 통계는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특허에 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특허나 의장권은 곧바로 제품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경제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된다. 기업이나 대학 등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특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위 10위 업체의 특허권 획득 수는 1만7589건으로 전년의 1만6759건 보다 늘어났다. 특허는 그 자체로 기업의 수익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 최대 컴퓨터 업체인 IBM이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획득, 10년째 수위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IBM은 지난해 3288건의 특허를 얻어내 2위인 일본의 캐논(1893건)을 크게 제쳤다고 뉴욕타임스가 특허청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IBM은 1993년 일본이 이전 8년간 차지해 온 1위 자리를 쟁탈한 후 이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IBM은 1993년 이후 지적재산권에 따른 수입이 1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 가운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3위), 제너럴 일렉트릭(8위), 휴렛팩커드(9위) 등 모두 4개가 10위권에 들었다. 나머지는 NEC, 히다치, 마쓰시타, 소니,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이었다. NEC는 2001년 2위를 차지했으나 4위로 밀렸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13위에서 8위로, 휴렛팩커드는 15위에서 9위로 각각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2001년 1450건의 특허를 얻어 5위를 차지했으나 지난 해에는 10위권 밑으로 떨어졌다.

또한 '대학 테크놀로지 매니저 연합회(AUTM)'가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한해 동안 미 전국의 대학이 벌어들인 로열티 총 수익은 8억2700만 달러에 이르며, 이 가운데 컬럼비아 대학은 전체의 15%를 차지하는 1억2989만5000달러의 수익으로 전국 대학 중 최고의 특허 로열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의 생존은 돈으로 치장한 겉모양이 아니라 기술과 아이디어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허가 대기업만의 수익원 도구는 아닐 것이다.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은 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실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특허권의 획득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발해

법무법인 발해는 미국 지적재산법 · 국제조세법 · 국

제통상법 · 상법 · 이민법 · M&A · 기업공개 · 투자유치 등의 제반 국제통상에 관계된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아왔으며, 기업회계 · 감사 · 경영자문 등의 기업경영에 관한 모든 법무 · 특허 · 회계, 그리고 세무서비스를 One Stop으로 제공하는 전문인 그룹이다.